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李丞宰(가톨릭대)

〈차 례〉

1. 자료 발견 경위
2. 자료의 소개
3. 부호의 종류
4. 해독 방법
5. 명칭 문제
6. 부호 구결의 의의

1. 자료 발견 경위

初雕大藏經의 하나인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에 角筆로 点과 線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었다. 이 점과 선은 일본의 訓点과 거의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國語史와 일본의 訓点 연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이 자료의 발견 경위를 간단히 기록해 두고자 한다.

7월 2일 角筆 연구의 개척자요 권위자인 일본의 小林芳規[Kobayashi Yoshinori](廣島大學) 교수와 그 일행이 한국의 각필 문헌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다.[1] 한국에서는 口訣學會의 南豊鉉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3일에는 단국대 도서관, 4일에는 동국대 도서관, 5일에는 고려대 도서관, 6일에는 誠庵古書博物館, 7일에는 연세대 도서관을 차례로 조사하였다.[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정도 小林 교수의 "日本에서의 角筆文獻 硏究의 現況과 展望"이란 제목의 강연도 들을 수 있었다.[3]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誠庵古書博物館 소장의 瑜伽師地論 卷第八에 각필로 기록된 점과 선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 점과 선은 일본의 훈점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행은 8일의 관광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정밀하게 유가사지론 卷第八을 조사하였다.[4] 9일 小林 교수 일행이 출국하였다. 11일 조선일보 문화면에 이 자료가 대서특필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2일부터 南豊鉉, 尹幸舜 교수와 필자가 자료의 점과 선을 정밀하게 전사하는 작업에 들어 갔

---

1) 小林 교수의 사모님과 松山東雲女子大學의 西村浩子[Nishimura Hiroko] 교수도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하였다.
2) 귀중한 문헌을 열람할 수 있게 협조해 준 여러 대학 도서관 관계자와 誠庵古書博物館의 趙炳舜 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3) 小林芳規(1989)는 각필의 기초적 이해에 필수적이다.
4) 필자는 趙炳舜 관장님의 厚意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초조본 유가사지론 卷第八十一, 卷第九十七, 卷第五 등의 문헌을 차례로 보게 되었다. 특히 卷第八과 거의 같은 종류의 점과 선이 卷第五에도 각필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맛보았다. 세 연구자가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卷第八과 卷第五의 점과 선을 轉寫하는 데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여하였다.

각필은 肉眼으로 볼 때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여야만 전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세 사람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점과 선을 옮겨 적었으나 간혹 의견이 서로 다른 때도 있었다.[5] 이 전사 과정에서 小林 교수가 특수 제작한 Scope의 효용이 아주 컸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Scope는 문헌에 빛을 비추어 凹凸이 확연히 드러나게 해 주는 일종의 조명 기구인데, 문헌에 특별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필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자료의 소개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第八은 총 21張을 콩풀로 붙여 이은 두루말이(卷子本)이다. 木版本이고 부분적인 탈획이 보이기는 하나 판각을 한 뒤 오래지 않아 쇄출한 것으로 보인다. 보존 상태는 아래 쪽에 물이 먹어 색이 바랜 것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6] 紙質은 楮紙인데 닥나무의 섬유질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성긴 편이고 이것이 보푸라기처럼 일어나 있는 곳도 많다. 卷頭와 卷尾의 題는 瑜伽師地論이며 版心題도 이와 같다. 각 張의 가로는 45.6Cm 세로는 29.0Cm 내외이고, 上下單邊이며 그 폭은 대략 22.2Cm 정도이다. 각 張은 23行으로 이루어지나 첫 張은 22行이다. 각 行은 14字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에서는 15字 혹은 13字로 이루어진 곳도 있다. 卷第五는 총 20張이라는 점만 卷第八과 다를 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 동일인의 각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계파의 부호가 적힌 것만은 분명하다.

初雕 大藏經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金斗鍾(1974)가 일본 京都 南禪寺 소장의 고려대장경을 소개함으로써 비롯된다. 그 뒤로 千惠鳳(1976, 1980)이 국내에 전하고 있는 초조본의 목록과 그 특성을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7] 이에 따라 초조본의 몇 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초조본은 형태적인 면에서 北宋 開寶勅板(開寶七年甲戌歲, 974년)과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나. 초조본은 刀刻이 비교적 精하고 筆力이 느껴지나 재조본은 자획이 고르지 못하고 박력

---

5) 이 토론 과정에서 두 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두 분에게서 배운 것을 마치 필자 고유의 견해인 것처럼 서술할 때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필자 혼자서 책임을 질 것이다.

6) 물 먹은 곳의 각필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7) 유가사지론 卷第八은 千惠鳳(1980)의 초조본 목록에 들어 있다. 당시에 이미 실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에 각필로 적힌 점과 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卷第五는 이번에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되는 자료이다.

이 없다. 초조본의 서체로는 方筆의 歐體가 주로 이용된다.

다. 초조본은 卷尾題로 그치고 있으나 재조본은 '大藏都監 奉勅雕造'가 追刻되어 있다.

라. 초조본에는 '敬, 竟' 등의 避諱缺劃字와 避諱兼諸字가 보이나 재조본에서는 바르게 고친다.

마. 초조본의 函次가 재조본에서 수정되는 일이 많다.

바. 초조본의 張次에는 '丈, 幅, 張' 등이 쓰이나 재조본에서는 '張'으로 통일된다.

사. 각 張은 23行 14字가 기본이다. (단, 첫 張은 22행이다.)

위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유가사지론 卷第五와 卷第八은 초조본임이 분명하다. 특히 避諱字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國前本(고려 顯宗 2년, 1011년 이후)일 가능성이 國後本(고려 文宗 17년, 1063년 이후)일 가능성보다 크다.[8] 따라서 이 자료에 점과 선으로 기록된 우리말은 11세기 전반기의 우리말을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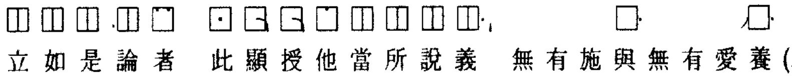
이 두 문헌에 각필로 눌러 적은 점과 선의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인쇄의 편의상 縱書를 橫書로 고치고 漢字를 □ 모양으로 표기하기로 한다.[9]

(2)

·□ ·□ ·□·□ ·□·□ ·□ ·□ ·□ :□

自 性 若 分 別　因 位 及 與 門　上 品 顚 倒 攝　差 別 諸 過 患 (八,1:9-10)

(3)



立 如 是 論 者　此 顯 授 他 當 所 說 義　無 有 施 與 無 有 愛 養 (八,16:20-1)

'性'字의 위쪽에 ·□를 부기한 것은 '性'字의 왼쪽 중간에 한 점이 찍혔다는 뜻이고, '患'字의 :□는 왼쪽 중간과 아래에 각각 한 점씩 찍혔다는 표시이다. '立如是論'에는 한자의 가운데 정도 위치에 직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顯'과 '授'의 하향 곡선은 각 한자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음을 보인 것이다. '義'와 '養'에는 점과 짧은 직선이 복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卷第八과 卷第五의 모든 문장에 점과 선이 기록되어 있다. 卷第八은 21張, 卷第五는 20張이므로 그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8) 初雕本 중에는 宋本系列이 아닌 것도 있다. 湖林博物館 소장의 初雕本 月燈三昧經 卷第十(惟函)과 僧伽吒經 卷第四(使函)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避諱缺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契丹本을 底本으로 한 國後本일 가능성이 크다. 再雕本 月燈三昧經 卷第十에는 '敬'의 피휘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再雕本이 初雕本과 달리 宋本系列임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成保文化財團(1988)을 참고하였다.

9) 한자의 형태를 □로 나타낸 것은 卷第五의 5張 23行 欄上과, 卷第八의 10張 22行 欄上의 두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卷第八에서는 각필로 네모 표시를 한 뒤에 먹으로 다시 네모를 적어 넣어 흥미롭다.

3. 부호의 종류

이 자료에 나오는 부호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점 → ·, ··, ∴, ∴(오른쪽 점 삭제), ∵(오른쪽 점 삭제), ∴, ∵, ...
직선 → ㅣ, ㅡ, —, -, /(長, 短), \(長, 短), ／(한자의 대각선보다 긴 것)
직각선 → ㄱ, ㄱ, ㄴ, ㅗ, /ㄱ
곡선 - 하향곡선 → ㄱ
횡향곡선 → ∪, ⌒, ㅡ(⁀)
상향선 → ㄱ, ㄱ, ㄱ, ㄱ
포형선 - ○(한자를 둘러싼 것)

이 부호들이 하나의 한자에 복합되어 적힌 조합형이 많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조합형까지 포함하면 이 자료에 나오는 부호형은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点이나 線이 그 한자의 文法的 機能과 音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예컨대 (1)의 ·□은 병렬의 'ㅈ[여]'에 해당하고 (2)의 ⊡은 주제의 'ㄱ[은/는]'에, □은 속격 'ㅋ[의/ᄋᆡ]'에 각각 대응한다. ·□은 종결어미 'ㅣ[다]' 또는 'ㅠ[라]'에 해당하고, (2)의 □·은 'ㄲ[ㄸ]'으로 읽을 수 있다. | 은 合符로 쓰인 예가 많으나 '-, /, \' 등의 다른 직선이 무슨 기능을 담당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10] 직각선도 마찬가지이다. 곡선 중에서 ㄱ은 뒤에 오는 부분을 먼저 해독한 다음 이 곳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하향곡선은 逆讀線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곡선이 붙은 한자는 훈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곡선 중에서 ∪과 ㅡ은 앞의 한자가 뒤에 오는 한자와 끊어지는 것임을 표기하거나 점의 소속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표기하였던 것 같다. 아래쪽에서 윗쪽으로 치켜 올라간 상향곡선(ㄱ, ㄱ, ㄱ, ㄱ)도 보이는데 이들은 주로 문장이 끊어지는 곳에 온다. 이 중의 일부는 위로 올라가서 읽으라는 기능까지도 담당한 듯하다. 한자를 둘러싼 모양의 포형선도 나오는데 그 기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11]

이 자료에는 간간이 구결자를 각필로 써 넣은 것도 나타난다.

(5) 가. ㄱ[은/는], ㄱ[나], ㅈ[져](마지막 획이 없음), ㄹ[을/를], ㅠ[라], ㅱ[로], ㅿ[사], ㅇ[오], ㅋ[의/ᄋᆡ], ㅐ[이], ㅓ[긔], ㅁ[인?]
나. ㅐㅁ[고], ㅐㅿ[이사], ㅌㅣ[나다?]

대개는 그 독법을 알 수 있으나 'ㅁ'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구결자의 모양이 석독구결

10) 7일 하룻동안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小林 교수는 그 연구 결과를 보내주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따르면 오른쪽 가운데 점을 역독점[返点]으로, 직선의 일부는 聲調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11) 해당 한자는 '亦, 一, 處, 者' 등이다.

의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북서향으로 약간 기울여 적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주격의 'ㅣ', 속격의 'ㅅ', 대격의 'ㄹ' 등이 이에 속한다. 후대의 자료에서 대격의 '을'을 'ㄴ'로 적을 때가 많으나 이 자료에서는 'ㄹ'처럼 첫 부분이 길게 나타난다.

4. 해독 방법

점과 선을 해독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각 한자의 統辭的 統合構造와 系列關係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1)의 ·□ 은 병렬되는 명사구에 찍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 '-ㅅ[과]'나 '-ㅓ[여]'가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은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에 통합되는 때가 많다. 이러한 통사관계는 점과 선의 해독에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 해독 작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 한자의 통사 관계만으로는 ·□ 을 '-ㅅ[과]'로 읽어야 할지 '-ㅓ[여]'로 읽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有, 無' 동사의 주어에는 □이 찍히는 때가 많은데 이 오른쪽 가운데 점이 역독점인지 주격조사를 표기한 것인지 혹은 동명사어미 'ㅁ'을 표기한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 한자의 통사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해독의 출발점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해독이 완결되는 일은 없다.

해독의 두 번째 단계는 同一한 文法 形態가 올 자리를 相互 對照해 보는 일이다. 한 예로 부사화 접사 '-이'가 올 자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왼쪽 위에 한 점이 찍힘을 알 수 있다.

(6) □ □ □ □
親 近, 乃 至(이상 卷八) 廣, 深(이상 卷五)

이 예를 통하여 왼쪽 위의 한 점은 부사화접사 자리임을 확인하게 된다. 후대의 부사화접사 '-이'가 주격조사 '-이'와 음상이 유사하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여 □이 주격조사 '-이'에 대응하는 예가 나오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왼쪽 위의 한 점은 '-이'로 고정하여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점과 선을 口訣字와 相互 比較해 보는 일이다. (5)에 제시한 것처럼 구결자의 판독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구결자를 통하여 주격조사 '-이'가 □으로 표기됨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7) 가. ⊡ □ ◪ □
知 足 天 唯 相 執 手 熱 惱ㅣ 便 息 (五,6:23-7:1)
나. ⊡ □ □ □ □ □
樂 化 天 相 顧 而 笑 熱 惱 便 息 (五,7:1-2)

(8) ⊡ □
又 雖 無 常 法ㄱ 爲 无 常 法 因 (五,15:22)

(7)의 두 문장에서 '熱惱'와 직접 관련이 되는 통사구조는 완전히 같다. 그런데 (7.가)의 '惱'에는 구결자 'ㅣ[이]'가 붙어 있는 대신에 점이 찍히지 않았고, (7.나)의 '惱'에는 구결자가 없는 대신에 □이 찍혔다. 이 대응을 통하여 주격조사 '-ㅣ[이]'는 □으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8)의 예에서는 ⊡이 주제의 의미를 가지는 구결자 'ㄱ[은]'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이처럼 이 문헌에 기록된 구결자는 그 수효가 비록 많지 않지만 점과 선이 지시하는 바를 해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해독의 네 번째 단계는 여러 借字表記 資料에서 特異하게 읽히는 漢字에 주목하여 符號의 音相을 추적하는 단계이다. 한 예로 卷5의 '當'에는 ⊡이 찍힐 때가 많은데('田'字의 좌상 위치) 이는 아마도 '반ᄃᆞ기'의 '기'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석독구결에는 '當'에 말음첨기자 'ㅅ[기]'가 붙은 '當ㅅ[반ᄃᆞ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 바로 이 'ㅅ[기]'를 ⊡으로 표기하였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唯'字에도 비슷한 위치에 한 점이 찍힌다. '唯'는 석독구결에서 항상 '唯ㅅ'으로 적히고 '오직'으로 읽어 온 부사이다. 따라서 '기/ㄱ' 즉 구결자 'ㅅ'의 자리는 네모 안의 왼쪽 아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一致를 통하여 각 부호의 음가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기되는 '此中'을 예로 들어보겠다. 卷8에는 다음의 4가지 '此中'이 나온다.

(9) 가. □⊡ 此 中　　나. ⊡ 此 中　　다. ·□⊡ 此 中　　라. ·□⊡ 此 中

이들은 표기가 서로 다른 만큼 각기 달리 읽어야 할 것이다. 이때 吏讀와 口訣의 여러 표기가 참고가 된다. 吏讀文에서는 지시대명사 '此'의 처격형으로 '此中[이긔]'(永川菁堤碑其二 798년)와 '此亦中[이여긔]'(유경공신녹권)가 쓰인 바 있다. 釋讀口訣에는 '此ㅣㄱㅓ, 此 中ㅇㄷ, 此ㄷ 中ㅇㅓ' 등이 나온다. (9.가)의 '此'에는 □이 찍혀 있으므로 '此'를 훈독하여 '이'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가)는 이두의 '此中[이긔]'에 해당한다. (9.다-라)의 '此'에는 ·□이 찍혔는데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ㅇ[여]'로 읽힌다. 따라서 이곳의 '此'는 '此여' 정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9.가)와 (9.다)의 '中'에는 한 점이 찍혔는데 이것은 '긔'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9.나)와 (9.라)에는 두 점이 찍혔는데 윗점은 '아'로 아랫점은 'ㅅ'으로 읽어 석독구결의 '-ㅇㄷ[앗]'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해독하면 위의 네 가지 표기는 각각 '이 中긔', '此 中앗', '此여 中긔', '此여 中앗'이 될 것이다.[12]

12) 이때 '中'을 不讀字로 보아 생략한 채 읽어야 할 것인지 '中'의 固有 訓으로 읽어야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吏讀 자료에 따르면 不讀字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석독구결 자료에 따르면 '가운데' 정도의 고유 훈으로 읽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9.가)와 (9.다)의 '中'에 찍힌 한 점이 '긔'이고 두 점의 아랫점이 'ㅅ'임은 분명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時'字에 적힌 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時'字는 크게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10) 가. 時(無点) - 一決定時二止息時…, 一時分淸淨二他信淸淨…, 時分天, 故名非時語者, 長時無閒, 應順時機, 時節變異
나. 時(□·) - 於歌笑嬉戲等時及, …等時, 因時, 果時, 時時, 非時而說前後
다. 時(□:) - 法生時, 煩惱起時, 受用時, 於邪說法時, 尒時, 或時, 一切時, 於一時

(10.가)의 '時'에는 점이 찍히지 않았는데 이들은 대개 音讀하는 '時'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0.나)의 '時'에는 한 점이 찍혀 있으므로 이를 '中'에서와 같이 '긔'로 읽을 수 있다. 이 '긔'는 15세기 '띄'의 '긔'에 해당한다. (10.다)의 두 점은 이보다 더 정확한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두 점은 15세기의 '픠'에 대응한다. 한자의 가운데 아래에 오는 점 중에는 속격에 해당하는 것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 점은 'ㅅ'으로 읽고 (10.나)의 한 점을 '긔'로 읽어 이를 합하면 '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中'과 '時'에 찍힌 한 점은 '긔'로 一致하게 된다.

□·이 속격조사 '-ㅅ'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11) 가. □ □· □·□· □·□
三 界 有 情 所 依 之 身 當 云 何 觀 (五,5:8)
나. □· □·□· ( ) □·□
是 故 此 樂 名 爲 常 樂 无 漏 界 攝 (五,5:22-3)
다. □ □ □ □·
一 切 三 界 有 情 壽 命 安 住 (五,6:3)
라. □· □ □ □ □·
種 種 取 着 恒 爲 欲 染 之 所 隨 逐 (五,4:19-20)

속격조사는 (11.가-나)에서처럼 가운데 아랫점으로도 찍히고 (11.다)의 '三界'처럼 왼쪽 아랫점으로도 적혀서 혼란스러운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점은 無情名詞에 찍히고 有情名詞에는 가운데 윗점이 찍히므로 '-ㅅ'과 '-의'가 구별되었음은 분명하다. 아무튼 가운데 아랫점 중에서 속격의 '-ㅅ'에 대응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위의 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1.라)의 '種種'에 찍힌 점은 '갓갓'의 말음 'ㅅ'을 표기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中'字와 '時'字에 찍힌 두 점 중에서 아래에 오는 것은 속격의 '-ㅅ'과 표기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一致 現象을 제시할 있다면 그 해독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의 모든 해독이 둘 이상의 요소가 일치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것들이다. □는 부사화접사 '-이'와 주격조사 '-이'의 일치, □·는 '中'字와 '時'字에서의 일치, □·는 '中'이나 '時'에 찍히는 아랫점과 속격조사 '-ㅅ'의 일치 등이다. 따라서 차자표기 자료의 독법에 따라 그 음상을 추적하는 네 번째

단계는 해독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표기되는 것을 서로 구별하여 읽게 해 주는 실마리를 바로 이 넷째 방법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명칭 문제

点과 線으로 언어 형식을 표기한 것을 일본에서는 訓点이라 부른다. 訓点의 '点'은 단순히 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線도 포괄하는 명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線을 点으로 아우르는 것이 우리의 언어 감각에는 맞지 않는다.[13] 따라서 필자는 유가사지론 卷第五와 卷第八에 각필로 적힌 점과 선을 符號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 부호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을 符號口訣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가사지론 卷第五와 卷第八에 각필로 기입된 것은 구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부호는 漢文의 번역을 도와주는 주변적이고도 종속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 부호는 구결 범주에 포괄된다. 한편 네 번째 해독 방법을 통하여 末音添記字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것은 한자를 訓讀하였음을 말해 준다. 말음첨기자는 한자를 訓讀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슬러 올라와서 읽으라는 뜻의 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逆讀도 확인된다. 逆讀点이 쓰였는지는 불명확하나 逆讀線이 사용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훈독과 역독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각필로 기입된 것은 일종의 釋讀口訣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석독구결은 한자의 약체자에서 비롯된 口訣字로 표기하지만 符號口訣은 여러 종류의 부호와 부호의 위치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符號口訣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文字口訣이라는 용어도 성립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구결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한다.

(12) 구결 { 부호구결 / 문자구결 { 석독구결 } 석독 / 송독구결 } – 송독

기존의 석독구결이나 송독구결의 표기에 쓰인 口訣字는 字形과 字音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자구결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나 새 자료의 符號字는 이들을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때 '문자'와 '부호'의 관계를 '한글' 맞춤법과 그에 부수되어 있는 '문장부호' 사용법의 관계로 비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호구결의 '부호'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보통의 부호는 제 音價을 가지지 못하지만 부호구결의 부호자는 ㄱ은 '이', ㄴ은 '여', ㄷ은 '의/ᄋᆡ' 등으로 제 음가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새 자료의 점과 선은 음가가 없는 보통의 부호와 구별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 하나 짜리의 음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15] 같은 한 점이라 할지

13) 우리말로 点은 '찍는' 것이고 線은 '긋는' 것이다.

14) 구결자는 일반적으로 字意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구결자가 일종의 表音文字에 속함을 뜻한다. 漢字처럼 字意까지 갖추어야만 表意文字라고 할 수 있다.

15) 한글의 'ㄱ'이나 'ㅏ'가 제 음가를 가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라도 그 위치에 따라 음가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점과 선 등이 고정된 음가를 가지는 문자와 구별된다. 즉 形과 音을 모두 갖추어 일정하게 사용되는 '문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결국 유가사지론 卷第五와 卷第八의 점과 선 등은 보통의 符號도 아니요 그렇다고 文字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하여 符號字라는 명칭을 붙여 보았다. 이 符號字라는 명칭은 口訣字, 吏讀字 등과 구별할 때에 효과적이다.

6. 부호구결의 의의

새로 발견된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의 角筆은 국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어학적 의의로는 우선 새로운 연구 자료를 추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1세기 이전의 국어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11세기의 우리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1973년에 舊譯仁王經(上) 落張 5張이 발견되었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 발견된 자료는 부호가 달려야 할 곳에는 거의 다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41張에 달한다.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또한 부호 사용의 규칙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해독의 시초 단계에 불과하여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나 자료의 질적 우수성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러 번 반복되는 통사 구조를 통하여 조사나 어미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한자에 다양하게 적힌 부호를 통하여 그 음상이 어떠했는지도 추적할 수 있다. 중세국어 초기의 문법론뿐만 아니라 음운론까지도 서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발견은 국어학계의 일대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사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의 角筆 사용 전통을 확인한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필 연구는 1960년대에 일본의 小林 교수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이에 일본과 중국의 여러 문헌과 그림에서 각필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한국에서도 각필을 사용하였음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제부터 각필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문화 양식이 생겨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시기는 상당히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고 생각한다. 小林 교수는 誠庵古書博物館 소장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한 곳에서 角筆로 쓴 두 点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각필이 단 한 곳뿐이기에 각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따라서 각필의 첫 사용 시기를 섣불리 8세기까지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두 点이 마침 빠뜨린 단어 '如是'를 墨筆로 記入해 넣은 바로 옆에 적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16] 여기에 참고 삼아 湖巖美術館 소장의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墨点

16) 小林 교수는 대영박물관 소장의 敦煌文書에서도 이처럼 교정한 곳에 사용된 각필점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찍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17] 卷第十 끝의 조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施主者가 나온다.

(13) 成檀越新羅國京師所白 (19-20행)

그런데 이 10字의 한자 오른쪽에는 각각 2점 내지 4점의 墨点이 찍혀 있다. 이와는 달리 卷第五十의 조성기에서는 이 墨点이 찍힌 10字가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묵점이 일종의 교정 부호였음을 뜻한다. 卷第十의 조성기를 작성할 때에는 이 시주자를 기록하여 명단에 넣었지만 그 뒤의 조성기를 기록할 때에는 점 찍은 10字를 빼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李喜寬 2000). 이 예로써 삭제하라는 의미의 校正符號로 2점(내지 4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角筆 2점도 일종의 교정 부호이므로 이와 용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점이 찍힌 위치도 해당 부분의 오른쪽으로 서로 일치한다. 화엄경사경 조성기의 묵점이 '삭제'를 의미한다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각필점은 '삽입'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2점을 각필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8세기경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각필을 사용한 셈이다.

이 교정 부호는 符號 使用의 첫 두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교정 부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들을 符號口訣의 점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즉 "부호구결이 이미 8세기경에 사용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나 부호구결이 점과 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 교정 부호는 부호구결의 개막을 알리는 실마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삭제나 삽입 부호는 句點, 讀點 등과 더불어 符號 사용의 첫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日本의 訓点이 日本 固有의 독특한 漢文 讀法을 보여 준다고 알려져 있다.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의 点과 線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韓國에서도 일본의 훈점과 같은 성격의 符號口訣이 발견됨으로써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일본의 훈점과 한국의 부호구결이 부분적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말하면 한문을 자국어로 풀어 읽는 방법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점과 선의 종류, 그리고 그 위치와 방향 등으로 여러 문법 형태나 이들의 음상을 표기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점과 선의 기본적인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훈점은 한국의 부호구결을 수입하여 일본어의 체계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몇 해 전에 漢字의 略體字를 둘러싼 韓日間의 논쟁이 있었다. 한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약체자를 과감히 수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일본의 모 언론사가 마치 일본의 관습을 따르기로 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논쟁이 비롯되었다. 그런데 유가사지론 卷第五와 卷第八을 조사해 보면 우리 조상들도 아주 많은 약체자를 사용하였음을 새삼스레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斷, 亂, 屬'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약체자로 표기하는 등 약체자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을 보고 나서 '한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약체자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실상을 왜곡하게 된다. 초조대장경은 수입된 北宋 開寶勅板과 契丹本

17) 湖林博物館의 李喜寬 학예연구실장의 厚意로 선명한 천연색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을 底本으로 삼아 板刻한 것이다. 따라서 宋과 契丹의 약체자가 그대로 한국에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약체자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처럼 일본의 약체자도 중국이나 한국의 약체자가 적잖이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훈점이 한국의 부호구결과 그 운용 방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문화의 전파 방향만을 논거로 들어 이렇게 추측한다면 이는 과학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추정이 현실화하여 입증되려면 일본의 여러 훈점 자료보다 앞서는 시기의 부호구결 자료가 나와야만 한다. 아직은 일본의 훈점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부호구결은 나온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 학자들이 墨点이나 角筆点에 관심을 쏟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자료를 찾는다면 적지 않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 실마리로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각필점과 화엄경사경 조성기의 묵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 참고문헌 ◎

金斗鍾(1974), 現存한 高麗大藏經板에 대하여, 『學術院創立20周年紀念論文集』, 學術院.
成保文化財團(1988),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査研究』, 湖林博物館.
李喜寬(2000),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跋文의 基礎的 檢討, 미발표 원고.
千惠鳳(1976),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11, 성균관대.
千惠鳳(1980), 高麗初雕大藏經, 『人文科學』 9, 성균관대.
小林芳規(1989/96), 『角筆のみちびく世界』, 東京:中央公論社.